

GIST 인문사회과학부, 안광복 작가 초청 공개 철학특강 개최

-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고대 철학의 지혜로 오늘날의 삶을 돌아보다
- 철학 전공 교수진 확충하고 공개특강 시리즈 운영...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접점 확대
- 10월 31일(토) 오후 4시 대학C동서 개최... 학생·교직원·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



▲ 2026학년도 2학기 GIST 인문사회과학부 2차 공개 특강 연사로 초청된 안광복 작가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오는 **10월 31일(토) 오후 4시 대학C동 (건물번호 N6) 104호에서 안광복 박사(서울 중동고 철학교사)를 초청해 인문사회과학부 공개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의 주제는 「‘좋은’ 삶을 위한 철학: 소크라테스와 스토아 철학」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 소크라테스가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스토아 철학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말하는지 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고대 철학의 지혜를 오늘날의 삶에 비춰 보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고민을 철학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강연자인 **안광복 박사**는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소크라테

스 대화법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부터 서울 중등고등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쳐 온 그는 《처음 읽는 서양 철학사》, 《철학, 역사를 만나다》, 《열일곱살의 인생론》 등 다수의 철학 교양서를 집필했다. 신문과 잡지에 철학 관련 글을 기고하고 다양한 인문학 강연을 이어 오며 철학을 대중의 일상과 연결해 왔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과 사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는 동시에,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철학은 이러한 질문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이번 특강은 고대 철학의 지혜를 통해 오늘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GIST는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철학 전공 교수진을 확충하고 관련 교육·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철학과 예술을 주제로 한 공개특강을 통해 구성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하고 사유할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특강 역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인간과 사회, 삶의 의미에 대한 성찰과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공개특강은 하버드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올해 초 GIST 인문사회과학부에 부임한 안강훈 교수가 기획한 특강 시리즈의 두 번째 행사다. 철학과 예술을 주제로 외부 연사를 초청해 일상 속 철학적 사유부터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폭넓게 다루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발표를 듣고 자유롭게 질문과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특강에는 GIST 학생과 교직원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